

축산 뉴스

소규모양돈농가 계열화

- 농수산부, 기업양돈 등록제 실시 -

농수산부는 부업양돈농가를 육성키 위해 소규모 양돈농가를 육가공공장, 사료공장 등의 대기업이나 축협단위조합에 계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농수산부 관계자에 따르면 돼지의 경우 사육농가의 거의 대부분(98%)이 1백마리 미만의 부업규모인데 최근 기업양돈장이 대규모화하는 추세에 있어 부업양돈농가의 보호를 위해서는 계열화가 바람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화가 이루어질 경우 부업농가에서 사육된 돼지는 대규모 양돈장, 축협 등에서 의무적으로 수집·출하를 맡게 되며, 부업농가는 경기의 호·불황에 관계없이 안정된 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축산법을 개정해 기업양돈가의 등록제를 년내에 실시할 예정인데 사육두수 조절과 돈육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급과 가격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업양돈가 등록제 실시와 기업양돈가 돈사 신·증축억제 등이 검토될 것이다.

12월 단미사료 생산 및 가격동향

- 전년 대비 어분 1.2% 증산 -

'83년 총 어분생산량은 104,105톤 ('82년

102,906톤)으로 약 2,000톤이 증산되었으나 배합사료 생산량 5,851,581톤('82년 4,419,801톤)에 비하여 어분 사용량은 저조한 편이다.

인산칼슘의 경우 40,758톤('82년 26,155톤)으로 전년에 비하여 약 15,000톤이 증산되었음은 팔목할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어분 : 12월 생산은 11,340톤('82.12월 8,986)으로 월간 생산량으로는 4월, 3월 다음가는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속적인 취치의 호황과 11월중 폭발적으로 어획된 정어리의 여파를 짐작케 한다.

생산의 호조를 보인 반면 판매는 좀 처진다는 것이 생산업체의 얘기다. 어분상품의 경우 12월 중순 평균가격 473원이 12월하순 469원, 1월 중순 462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은 한 예가 되겠다. 물론 도입어분 4,400톤이 1월 9일 입항되었고 '83 농안기금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있어 생산자는 서둘러 팔려하고 소비자는 좀더 천천히 구매하겠다는데서 현금이 필요한 쪽에서 자의와는 관계없이 가격의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어느 면에서는 정부의 저물가 정책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 보겠다. 간혹 배합사료 인상요인중 어분가격 상승을 이유로 하였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어분가격 상승이 얼마나 배합사료 가격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지는 거론하지 않겠으나 어분가격 하락으로 배합사료 가격 인하설이 나

오지 않고 있음은 또 하나의 논리의 모순을 엿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생산자의 불만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 재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보아 넘기기엔 너무 많은 반복의 되풀이를 용납않는 적절한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

인산칼슘 : '83년 총량은 증가한 반면 12월 3,204톤 생산은 11월 3,866톤에 비하여 약간 저조현상을 보이고 있음은 지속적인 쥐치 호황으로 여수, 삼천포 등지의 어분중품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대적인 현상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어분상품에 비하여 어분중품 특히 쥐치 부산물을 이용한 어분에는 인과 칼슘함량이 높아 좋은 의미의 상호 보충적인 역할이 반대로 경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실례다.

생산자는 어분값만 받지만 구매자는 어분을 구매하면서 덤으로 인과 칼슘을 황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나막신 장사를 하는 아들과 짚신 장사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날이 개이면 개었다고 울고, 비가오면 비가 온다고 울고 하다가 웃고 지내는 슬기를 얻기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알 수 없으나 쥐치의 호황이 인산칼슘업계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이다.

(단미사료협회 제공)

어분, 어유 재고감소

어분의 최대 생산지인 남미에서의 계속된 홍어와 어분 및 어유의 수출 호조에 따라 어분의 재고가 급격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Oil World」는 최근 어분의 재고는 지난해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어유 역시 1982년도 생산이 110만톤에 그칠 것으로 추계되는 속에서 년도말 이월재고량 역시 지난해 대비 25%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으로써 품귀현상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83년도 사료용 밀 1,100만 메트릭톤

- 작년 겨울밀 파종면적은

6천490만 에이커 -

1984년도 수확을 위한 겨울밀 파종면적은 지난해보다 4%가 증가한 6천490만 에이커에 달한다고 미농무성은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지금까지의 최고기록인 1982년도 수확을 위해 파종되었던 6천650만 에이커보다는 2%정도 적은 면적이다.

주별로는 노스다코타가 전년비 250% 증가, 사우스다코타가 27% 증가, 네브라스카가 16% 증가, 캔사스가 2% 증가로 나타났으며, 텍사스는 전년비 6% 감소, 오클라호마는 1% 감소로 나타났다.

한편 1983년도 사료용으로 사용된 밀은 제2차 대전이후 최대치인 약 1천100만 메트릭톤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것은 1982년도 사용량의 거의 배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처럼 사료용으로 사용된 밀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료곡물의 공급물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FDA, 곡물먼지 방지위해

미네랄오일 허용

미국의 식품약품국(FDA; The Food & Drug Administration)은 곡물의 저장, 하역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백등유(White mineral oil)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규정을 수정하였다.

12월 15일 발표된 바에 의하면 FDA는 밀, 옥수수, 대두, 쌀, 및 여타 사료곡물의 저장, 하역시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곡물 총중량의 0.02%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백등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미국농무성은 백등유의 사용이 곡물의

규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으나,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곡물의 등급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초대형 곡물 사일로 착공

- 울산에 25 만톤 규모, 85년내 완공키로 -

태영개발·울산탱크터미널(대표 윤세영)은 사료곡물 실수요업체인 S 그룹과 곡물보관 사일로 및 곡물하역시설, 선박접안시설을 울산에 설치키로 합의하는 한편 합작법인체인 <주>울산사일로를 1월11일자로 설립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시설내역을 보면 총용량 25만톤 규모의 콘크리트 사일로, 시간당 750톤급 하역시설 2기(총 1천 500톤)를 금년에 착공하여 85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6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부두시설공사들을 올 상반기에 착공, 85년까지 완공시킬 계획이다.

한편 이 시설이 완공되는 85년 이후에는 영호남지역의 수입곡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곡물보관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보관물량 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애완동물사료산업 지속성장

- 동물사육수 증가, 사료질 고급화 -

애완용 동물 사료산업은 지난 수년동안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미국 등 서구에서 애완용 동물은 이미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까지 격상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 사료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

불경기에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애완용

동물 사료업체가 경기회복과 함께 양질의 사료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질의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많은 수분을 포함한 통조림 형태의 일반적인 제품에도 많은 소비가 뒤따랐다.

경기회복의 영향과 함께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애완용사료에 관한 법률(애완용 사료에 영양소 및 그 기능을 명기할 것을 규정)에 힘입어 종자 및 발육상태별로 품질이 특화된 건조한 상태의 사료가 앞으로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미국 사료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통과된 또 다른 한 법안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거주한다 할지라도 노인이나 신체장애자는 애완용 동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와같은 사료의 고급화와 사육인구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애완용동물 사료산업은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지개발 규제 완화

- 현지거주자는 매입시기 관계없이 허용 -

농수산부는 초지개발이 침체될 것을 우려, 억제규정을 일부 완화 조치했다.

농수산부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 82년말 초지개발과 관련, 산지투기가 크게 일자 이를 막기 위해 82년 10월15일 이후 매입한 산지는 무조건 초지개발을 억제해 왔는데, 최근 초지개발이 침체될 기미가 보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산지소유자는 현지 거주자의 경우 82년 이후 매입했다라도 산지매입시기와 관계없이 초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켰다. 또한 농어민후계자, 새마을청소년, 축산전공자 등에도 산지매입 시기에 관계없이 초지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농수산부의 이같은 조치는 당초 산지매입시기를 재조정, 전반적으로 초지개발을 완화할 계

획이었으나 투기조집이 완결되지 않아 부분적인 완화에 그친 것이다.

한편 농수산부는 올해 84억원을 들여 신규초지 1만ha와 13억 5천만원을 지원하며 부실초지 5천ha를 각각 개발키로 하고 도별 배정물량을 확정했다.

- 경기 : 6백ha •강원 : 2천ha
- 충남 : 9백ha •충북, 경남, 전북 : 1천ha
- 전남 : 1천 3백ha •제주 : 1천 4백ha

작년에는 먹는 장사 잘돼

83년에는 식품업계에 많은 공장의 신·증설이 있었다.

이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품목의 다양화로 경쟁이 가열화하여 더욱 소비를 촉진하여 가공식품의 조기 정착에 박차를 가하였다.

패스트 후드(fast food) 분야에서도 쉐커키치킨 등이 튀김가루 수입 등의 문제는 있으나 두산계열의 한양식품에서 우선 서울시내에 3개 정도의 점포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고 협진양행 계열사 <주>한암이 미국의 버거킹 점포를 종로 3가에 오픈할 예정이어서 미국 패스트 식품업계의 대리전이 서울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육가공제품의 경우 많은 신제품이 개발되었으며 시장규모는 5백억~5백50억규모에 달했다.

이들 업체들은 앞으로 노계를 원료로 사용하는 문제 등이 검토되고 있어 채란 양계업계의 관심이 크다.

그외에도 스프원료로 닭고기가 이용되는 라면의 경우에는 연간 시장규모가 2천 3백억원, 두유(豆乳)의 경우에는 270억원 정도의 시장규모였다.

부가세 성실신고 혜택

- 신고기준율 2천 4백만원으로 하향조정 -

국세청은 지난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고 신고기준율을 하향 조정했다.

83년도 총수입금액이 2천 4백만원 이하인 영세축산업자가 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수입금액을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 없이 신고수입대로 결정하며 초과자라도 성실신고자에게는 신고대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등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최소한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서울미원 정주사료공장 5월준공

- 1만 8백평 대지위에 50억 투입 -

서울미원 <주> (대표 임철수)이 작년 11월 정주에 대지 1만 8백평, 건평 2천 3백평 규모로 착공한 사료공장은 현재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5월말이면 1단계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총 5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정주공장은 미국의 웹사로부터 최신기종인 'F101'을 도입하는 한편 완전 컴퓨터시스템 등을 설비하게 되며 85년까지 계속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충남과 호남지역에 주로 공급되는데 동사에서는 양질의 사료를 생산키 위해 5단계 관리방침을 펴 나가고 있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국의 브로일러산업 계속 발전

태국의 브로일러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다.

이는 재벌회사들이 계열주체로 참여하였고 일

찌기 all in, all out (全入 全出)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양관리면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브로일러붐이 (Broiler Boom) 분 것은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수출량의 80~85%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냉동품으로 (frozen chickens) 80년에 17,314t (8억 6천 6백만 baht), 81년에 25,457t (10억 8백만 baht <태국화폐>), 82년에 31,063t (13억 9천 2백만 baht), 83년에는 39,000t이다.

태국은 수출국과의 거리가 멀고 해마다 단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데 냉동품 수출은 가격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생산해서 냉장상태로 수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두수입창구 일원화

- 가격경쟁 없애고 국내증산 유도 -

농수산부는 그동안 한국연식품공업조합, 대한장유공업조합, 실수유자 등에 의해 다원화되어 있던 대두수입창구를 올해부터 농협중앙회로 일원화했다.

이는 대두수입 다양화에 따른 국내 수입상사간의 가격경쟁, 소량구매자의 고가구매 등의 불편을 없애고 국내 대두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농수산부는 국내 대두가격의 차이를 없애고 공급가격을 단일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차액은 대두생산기금으로 조성하여 대두생산농가에 비료를 무상공급하는 등 국내 대두증산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올해 잠정 책정된 대두수입 예정량은 20만톤으로 두부용 8만톤, 두유용 2만톤, 장유용 1만5천톤, 조절용 3만톤 등이고 관수용

은 2만톤인데 수입물량은 조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7회 육용종계 경영자 세미나

- 마니육종, 그린파크호텔에서 -



(이 계조 회장) (김 영환 사장) (박 영일 교수)

마니육종(대표 김 영환)은 제7회 육용종계 경영자세미나를 지난 1월 21일과 22일우이동 소재 그린파크호텔에서 전국 육용종계 경영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 계조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한해를 더듬어 보면 년초 호경기시 분수에 맞지 않는 확장과 과잉생산, 소비위축으로 불황을 초래했다」고 전제하고 「합리적인 경영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수난을 당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 영환사장은 육용종계관리 개선점에 관한 발표에서 「종계의 일령별, 품종별, 종란 무게별로 종란을 나누어 입란해야 부화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전하고 「좋은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란을 자주 수거해 난각에 먼지와 병원균이 붙지 않도록 하고 계군의 일령, 종란일령, 부화실의 기온, 품종 이란시기, 검란회수, 부화기 종류, 종란보관온도 등에 관심을 갖고 입란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강사로 나선 김 호섭부장은 「육용종계 경영목표로 좋은 종자선택, 좋은 조건, 좋은



△ 그린파크호텔에서 열린 마니육종 세미나

사양관리만이 경영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니육종의 위생적인 병아리생산과정을 소개하는 VTR 상영이 있었다.

다음날 오 경록상무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ILT, AE의 종합대책 및 효과적인 투약 프로그램」에서 「각종 질병은 종계의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영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바 완벽한 방역프로그램 적용과 일령별로 시기적절한 투약은 종계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여 준다」고 밝히고 「백신을 선택할 때는 접종하고자 하는 닭의 상태, 일령, 접종회수 등을 고려하여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슬라이드를 통해 83년 12월부터 현재까지의 해부학적 소견을 발표했다.

이어 박 영일교수(서울농대)의 「세계 육용종계의 육종방향」에서는 「한국 여건에 알맞은 브로일러 육종방향이 시급하며 83년도 닭고기 소비는 11만 9천톤으로 전체 육류소비량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고 영양이 풍부한 닭고기 소비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하고 「육용종계 육종방향은 산란수의 증가, 수정율·부화율 향상, 모체체격 감축(사료비 절감)등이며 또한 유전공학의 응

용전망은 닭의 성장촉진 홀몬 개발, 항체의 개발, 질병예방을 위한 백신개발, 육용계 육종에 있어 왜소유전자 이용에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호섭부장의 「통계로 본 84년 양계 분석」은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84년도 경기를 예측했다.



AGROTECH '84 개최

금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국제 농업전시회 (AGROTECH '84)가 개최된다.

참가를 희망하거나 자세한 것을 알기 원하면 본회나 Kuala Lumpur, Malaysia, Tel930513, Telex 31227 NIBAMA로 연락하시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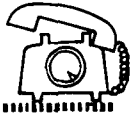
83년도 각국의 닭고기 교역

1983년 세계 닭고기 교역총량은 1백46만톤이었고 이 가운데 17%는 소련이 수입하였다. 그러나 전체물량의 50%는 중동제국이 수입하여 닭고기의 최대 교역지역이 되었다.

국가별 수입상황은 아래와 같다.

국 별	비 율 (%)
소 련	17
사우디아라비아	12
이 집 트	8
일 본	8
이 라 크	7
홍 콩	7
카 리 비 안	5
기 타 중 동	23
기 타 국 가	13
계	100

업계단신



○강 면회교수 書芸展 : 한국 재래가축 유원(流源)연구 등 40여년간 한국 축산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온 강 면회(고려대 축산과)교수의 개인서예전이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정년퇴임을 맞는 강 면회교수의 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축산분야 동료들과 제자들의 주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그동안 모아둔 강교수의 글씨와 도자기 등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시 첫날인 20일(월) 오후 4시에는 강교수의 논설, 수필 등을 묶어서 펴낸 개인문필집의 증정식을 가지며, 이어 조출한 다과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축산학회 회장, 한국동물사료 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한편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힘써온 강교수의 모처럼의 이번 전시회에는 학계, 업계, 제자 등 많은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강 면회 교수)

○한협축산(대표 박 준영) : 양축가 서비스를 위해 한협소식(4×6배판, 4pg)을 발간하고 국내 육계유통이 도제품으로 정착되면서 세

미 수요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좀더 값싼 병아리를 요구하는 양축가들의 뜻에 부응코자 금년 2월 1일부터 한협 603호 종계 생산을 재개하였으며, 영업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2월 1일부로 신규 사원을 특채하였다.

영업부 이 승목(연암전문대 사료과졸)

한편 동사는 각 품종 종계를 다음과 같이 염가로 분양한다.

코브(초대형육계)2,200원

한협 607호(대형육계)1,200원

한협 603호(대형육계)1,000원

한협 816호(유색중형육계)1,200원

한협 899호(유색중형육계)1,200원

○선진사료(대표 이 원복) : 동사는 조직 강화와 업무의 활성화를 촉진키 위해 지난 1월 1일부로 사내 사원을 승진 발령했다.

이 원근 구매부 차장(전 구매과장)

이 도하 업무부 차장(전 업무과장)

손 회영 판촉과장(전 제3지역장)

안 익환 총무과 과장대리

이영환 품질관리과 과장대리

서 홍규 생산부 주임

이 재식 생산부 주임

김 영수 영업부 주임

윤 하승 경리과 주임

○동서농산<주> (대표 장 세호) : 사세 확장으로 영업부와 생산부에 신규사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했다.

(영업부)

김 낙건(동아대 졸)

강 순달(연암축산전문대 졸)

서 동균(건국대 졸)

(생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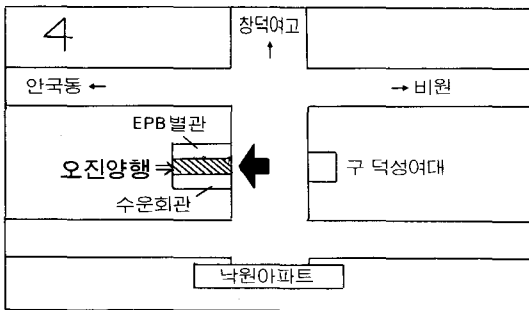
최 재호(건국대 졸)

○ 오진양행 (대표 정 진국) 사무실 이전 : 동사는 업무의 편의를 위해 사무실을 확장, 1월 10일자로 이전하였다.

변경주소 : 서울 종로구 경운동 89-4

(고려합섬빌딩 206호)

전화 : 723-4125, 4128 (변동없음)



○ 제일제당 (대표 이 수빈) : 인천지역 전화국번 조정에 따라 인천공장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변경번호 : 883-2601~4 (사료사업부, 제 2 공장)

○ 농축산물가공장 완공 : <주>원정물산 (대표 최 동식)은 서울 등촌동에 농축수산물 가공공장을 설립, 가동에 들어갔다.

6천 5백평의 대지위에 2천 3백평 규모로 세워진 이 공장은 닭고기포장육 2천kg, 돼지고기포장육 4백두분, 쇠고기포장육 50두분, 생선 및 패류 5톤, 고냉지농산물 20톤을 일시에 저장할 수 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강 성원) : 올해안으로 38억 4천만원을 투입, 7천평의 대지위에 사료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 <주>대성미생물연구소 (대표 조 성용) : 지난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안양 관광호텔에서 84년 1차 직원수련회를 가졌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을 극복하고 84년의 판매

신장을 위한 이번 수련회는 외부 초빙강사와 자체 강사진에 의한 세일즈맨교육, 질병 사양관리 교육, 체력단련과 각 직원들의 판매계획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종합평가 및 시상에서 모범상에는 오 현복씨 (영업부)가, 분임발표상에는 생산부가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전화번호가 795-1175에서 798-1175로 변경되었다.

○ 과학시스템 (대표 박 만후) : 그간 사료 혼합기, 자동급수기 (워터컵), 넵플급수기, 사료 급이기, 보정대, 도계기 부품, 등 각종 축산기 자재 및 일반 기계를 제조하던 동사는 금번 수출과 국내 주문증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보다 좋은 기구들을 생산 보급하기 위해 공장을 영등포구 신정동에서 서울 동대문구 신내동 436번지로 대폭 확장 이전하고 선반, 프레스, 밀링, 절단기, 로구로, 절곡기, 자동용접장비 등 일체의 시설과 생산인원을 보완했다.

동사는 또한 사료공장 설비 등의 외국 수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평택에 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85년초에 500평의 수출형 공장을 착공할 마스타 플랜을 완성했다.

또한 양계 양돈 낙농비육 기계 및 기구를 주로 취급하던 동사는 식품기계와 분유등 식품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사료 사일로 및 펠렛트 시설까지 전라인을 공급하며 이번에 육추육성용 푸르트 밸브급수기를 수입하여 개당 3,000원에 공급한다.

83년 11월 전 천호부화장 생산부장 하 철규씨를 상무로 영입한데 이어 83년 12월 1일 전 천호통산 생산부장 정 연태씨를 영업 1부장으로 특채하여 사료제조기, 사료공장용 사일로, 폐수처리 및 단백질 재생장치 등을 집중 판매한다.

○ 〈주〉이글케미칼(대표 강 승조) : 비타폴트-A 제조업체인 이글케미칼이 지난 12월 6일자로 주식회사로 새로이 출범, 대표 이사에 강 승조씨가 취임하였다.

주소 : 서울 성동구 화양동 167-39
전화 : 463-2352, 464-9045~7

○ 과학축산(대표 이 태일) : 동사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1월 18일부터 신규 사원을 채용하였다.

김 창식(건국대 축산과) : 기획부 근무

○ 식량증산 포장 : 진 의중 국무총리는 1월 20일 총리집견실에서 지난해 식량증산에 공이 큰 18개 각급 행정기관과 공무원 89명, 민간인 63명 등 1백 52명에게 각종 훈장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식량증산부문

• 은탑산업훈장 : 박 용곤(두산그룹 회장)

● 복합영농부문

• 새마을훈장 : 황 영구(중축개발협회장)
최 죽송(동물약품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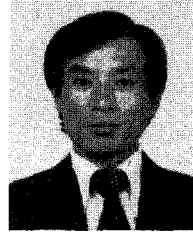
• 녹조근정훈장 : 이 기복(농수산부 가공이용과장)
이 수현(농수산부 축산과중소가축계장)

○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회장 한 인규) : 85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총회 준비를 위해 지난 2월 7일 웨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가축질병예찰협의회(위원장 설 동섭) :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가축질병예찰협의회를 안양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한편 최근 만연되고 있는 ILT 및 뉴캐슬에 대한 발생경보를 내릴 예정이다.

〈주〉동방(대표이사 이 각모) : 품질관리 의 향상과 기획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부 품질관리과에 양 건화주임(전 동해양조 시험실계장)을 기획부에 박 재출(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졸업예정)씨를 채용하였다.

동사는 앞으로 제품 개발 및 생산은 물론 품질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프터서비스에도 더욱 충실히 임할 각오로 있다.



(양 건화 주임)

○ 서울사료, 원선사료 인수 : 서울사료는 원선사료를 8억원에 인수, 2월경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서울사료의 1백 70톤 규모로는 물량공급이 모자라고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 2백톤 규모의 원선사료를 인수케 된 것이다.

○ 서울우유조합 양주공장 시운전 : 서울우유 협동조합(조합장 강 성원)은 현재 건설중인 양주공장 시운전을 2월중으로 시작, 3월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제일제당, 밀가루 수출시작 : 제일제당(대표 이 수빈)은 1월들어 중력분 1급과 강력분 1급짜리 35톤을 홍콩에 선적함으로써 첫수출의 개가를 올렸다.

이는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밀가루가격의 자율화를 계기로 동남아, 아프리카 등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린 후 이루어진 것인데 앞으로 시설과잉과 수요정체에 부심하고 있는 국내 제분업계에 새 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농수산물관련 오피업체 증가 : 최근 관련기관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관련 오피업체는 식물성생산물 5백 55개사를 비롯하여 조제식품, 음료, 알콜류 업체등 1천 4백 96개사로 집계 되었으며, 이중 동물성생산물은 육류 및 식용수입업체 42, 어류, 갑류가 17, 낙농품 29, 어류제품 17개사 등으로 나타났다.

○ 천호통산<주>(대표 이 계조) : 지난 1월 27일자로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인천) 884-3051~5

○ 현대약품(대표 진 수창) 사옥 신축 이전 : 동사는 강서구 등촌동에 사옥을 새로이 마련하고 2월 6일 동사 사옥 7층 강당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 주 소 : 서울 강서구 등촌동 539-6
- 전 화 : 694-4437, 9552
695-5984, 9562
- TLX : HDPHARM K25977
- 사서함 : 광화문 사서함 948

○ 한일농원(대표 차 두홍) : 최근 계속해서 아바에이카 실용계를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는 동사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사원을 특채하였다.

총무과 김 정복(강원대학 수학과졸)
영업부 김 관수(전 설하부화장)

○ 녹십자수의약품<주>(대표이사 : 장 인상) : '84년도 직원 충원 계획에 따라 영업부장에 옥 춘광(전 원신사료)씨를 기용하고 각 부문에 걸쳐 공개시험으로 유능한 신규사원을 1월 9일부로 채용했다.

영업부 : 배 지수(전국대 축산과 졸업)
김 원호(중앙대 축산과 졸업)
한 민영(충남대 낙농과 졸업예정)
기획부 : 문 영홍(전국대 사료과 졸업)
이 상진(경상대 수의과 졸업예정)

미생물부 : 김 영호(서울대 수의과 졸업예정)
이 홍섭(서울대 수의과 졸업예정)
총무부 : 신 동일(심석 종합고 졸업)
이들 신규사원들은 단기간의 사내 종합교육을 수료하고 각 부서에 배치된다.

○ 제일사료<주>(대표 오 관영) : 영업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3일부로 대구직매소를 김천으로 이전하였다.

김천직매소(소장 정 회완)
주소 : 김천시 부곡 1동 418-8
전화 : 김천 2-2642

한편 동사는 84년 1월 10일부로 영업판매 활성화의 생산기능 향상을 위해 신입사원 3명을 채용했다.

영업부 : 홍 종구(충남대 졸)
노 강태(전북대 졸업예정)
생산부 : 이 철훈(충남대 졸업예정)



△ 제일사료 김천직매소

○ 천호그룹(회장 이 계조) : 관리능력개발 세미나를 지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올림피아 호텔에서 그룹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강사로는 최 원문박사(한국경영교육 연구원장)가 관리능력개발에 대한 교육을 3박4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 동방유량<주>해표사료(대표 신 명수)

: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로 급격한 판매신장을 거듭해 지난 1월부터 양축가들의 방역비절감과 효율적인 사양관리를 위하여 육계사료와 양돈사료 일부에 구충제를 첨가하였다.

또 동사는 시험을 거쳐 구충제 첨가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양축가들의 보다 많은 수익을 줄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 구충제 첨가품목

○ 양돈사료 (갓날돼지, 젓먹이, 포유돈, 육성돈)

○ 육계사료 (전기, 후기)

○ 한국농산물 유통연구소(소장 유 달영)

: 지난 1월 27일 「84년도 1차 연구위원회」를 개최, 새 연구위원장단을 임명하고 연구위원을 보강 위촉하였다.

- 연구위원장 : 김 동희 (단국대)
- 부위원장 : 김 병태 (건국대) 권 원달 (충북대)
- 자문위원 : 윤 효직 (건국대)
- 신임 연구위원 : 이 래수 (농협유통차장) 문기환 (축협시장조사과장)

○ <주>유한양행(대표 박 춘거) : 우수한 약품을 양축가에게 공급하고 있는 동사는 특수 판매과를 지난 1월 1일자로 농축부로 승격시키는 한편 직원을 승진 발령해 새로운 각오아래 출범했다.

(농축부)

- 최 대현 상무
- 손 근호 차장(전 특판과장)
- 원 대성 과장(전 특판과 대리)
- 정 금원 대리

○ 맥도널드설립자 크록 사망 : 축석식품 제국을 건설했던 「맥도널즈」햄버거의 설립자 「레이 크록」이 심장병으로 14일 미국 「스크립스 메모리얼」병원에서 향년 81세로 사망.

「크록」은 1955년 「캘리포니아」에 햄버거상점을 갖고있던 두 형제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인후 「맥도널드」축석식품체인점을 설립, 현재 전 세계에 7천여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으며 81년에는 70억달러의 매출을 올렸었다. <星條紙>

○ 닭 호흡기질환 치료제 동남아수출 : 중앙캐미칼(대표 김 무진)은 닭의 CRD등 호흡기질환 전문예방치료제인 「E-마이신」을 동남아에 첫 수출했다.

이 「E-마이신」은 동물의 체질에 맞게 성분을 배합해 제조한 약으로 닭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어 최근 축산업계에서 널리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중앙캐미칼은 종래 수입에만 의존해 오던 가축용 비타민제인 나이아신의 원료를 수입 합성해 국산화하는데 성공, 앞으로 완제품 수입대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동 회사는 지난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지역으로 3만 5천달러의 「E-마이신」을 수출한바 있다.

○ 돼지고기 장조림 생산 : 축협(회장 이 득룡)은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2월 1일부터 돼지고기통조림(장조림)을 다시 생산키로 했다.

축협은 돼지고기가공품의 보급확대로 육류소비균형을 이루고 돼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간 3백톤(7천 2백마리분) 정도의 통조림을 만들어 시중에 공급키로 했다.

통조림규격은 1백 75g들이 캔으로 지방을 완전히 제거한 경육만으로 제조하는데 올해에 1백 71만개를 생산할 계획이다.

축협은 지난 80년에도 돼지고기통조림(장조림·조미)을 생산, 82년말까지 시판했었다.

○신 홍중사장(본회 부회장), 강 홍렬 사장(대덕상사) :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아틀란타에서 열린 세계 가금무역박람회에 참석하였다가 지난 29일 귀국.

○유 달영씨(한국농산물유통연구소장) : 일본 近畿대학 농산물유통연구회와 대만 농산물 유통협회 초청으로 1월 13일 해외연수단원 20명과 함께 출국하였다가 1월 23일 귀국.

○문 팔룡교수(건국대) :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초청으로 2개월간의 연수교육을 마치고 2월 20일 귀국 예정.

○김 동암교수(서울농대) : 초지협의차 1월 15일 출국하여 미텍사스주 A&N대학에 들른 후, AAAP 총회 서울개최에 따른 미주지역 축산학회관계자 유치활동을 벌이고 29일 귀국.

○김 성훈교수(중앙대) : FAO 아시아 태평양지역 유통 금융조합 담당관에 취임키 위해 2월 15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다. 2년간 재직할 예정.

○김 길원사장(한국바이엘화학) : 지난 1월 19일 학술부 송 기연부장과 함께 출국하여 대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동물약품시장을 둘러본 후 26일 귀국.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강 성원) : 1월 19일 축협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승진 발령했다.

- 박 대규 관리담당상무(전 관리부장)
- 안 봉혁 판매관리부장(전 기획과장)
- 민 병대 가공판매부장(전 조달과장)
- 신 동우 기술지도부장(전 진료수정과장)

○퓨리나코리아 사무실 이전 : 1월 10일 같은 건물(국제 보험빌딩) 2층으로 이전하는 한편 컴퓨터실을 신설했다.

전화번호 : 776-5167~9(전과 동일)

○밍크 일본서 수입 : 한국밍크사육회는 일본 북해도 밍크협동조합으로부터 우량종자 밍크

311수를 수입, 2월중에 분양할 예정이다.

○〈주〉진양사료(대표 강 성배) : 동사는 84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다짐하는 전사원 정신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월 22일 강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구근교 갓바위에서 강 성배사장을 비롯 직원 50여명이 참가한 이날 훈련에서는 험준한 산악등반을 통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기르고 전사원의 새로운 정신 무장을 통해 더욱 알찬 진양의 도약을 다짐했다.



△ 진양사료의 산악등반훈련 모습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최 죽송) : 협회회관 건립을 위해 1억원을 목표로 회관건립금을 적립하고 있다.

지난 83년까지 3천만원을 적립했으며, 올해에 4천만원을 추가하는 등 85년까지 1억원을 적립시킬 예정이다.

기 사 정 정

지난달 본지 양계협회소식란(p152)의 보조지원사업 내용중 축산진흥기금 보조 2억 9천만원은 2천 9백만원임을 밝혀 드립니다.